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

생명중심 가치관의 실천적 기록 담은 책들 잇달아 출간

노스트라다무스에서부터 에드거 케이에 이르기까지 금세기의 유명한 예언자들은 인류는 20세기말경에 이르러 우주적인 대격변으로 인해 그들이 지금까지 기술문명을 이용해 축적해 놓았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통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엄청난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인도의 민족지도자 간디 역시 서구식 산업주의가 언젠가는 인류 모두에게 가장 큰 저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의 비대한 발전과 그로인한 문명의 폐해에 남들보다 먼저 눈뜬 환경론자들은 지금 세계 도처에서 갖가지의 양태로서 나타나는 제현상을 바라보며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이 진단하는 현대는 엄청난 생명파괴와 비인간화가 구조화·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생태계의 질서와 인간 영혼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무지와 몰각에 기초해 온 종래의 경제학의 근본가정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지금까지 여하한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모든 경제학을 지배해온 ‘성장경제의 논리’가 ‘순환경제의 논리’로 전환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같은 생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그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우주생명은 하나의 만물이며 형제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하에 “경쟁이 아니라 공생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삶뿐 아니라 생명공동체 전체 속에서 확보하고, 넓혀가”는 일이다.

환경문제 해결의 새로운 한 모형

환경문제에 관한 종래의 책들이 대체로 환경파괴의 실태를 고발하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정책적 차원의 입안을 요구하는 제안서들로 주종을 이뤘다면, 최근들어 서점가에 소개되는 몇권의 책, 「월든」 「생명의 농업」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미래의 농장」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 땅덩이와 밥상」 「세계의 공동체마을」 등의 일련의 번역서 및 국내저술들은 앞서의 ‘순환경제론자’들이 주장하는 자연과 생명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논리’를 일정하게 따르면서 환경문제 해결의 새로운 한 모형을 제시한다. 이책들은 “지금의 환경운동이 활발하기는 하나 아직도 대세를 이루는 것은 기술주의적 접근이며, 경제성장 논리를 흔들림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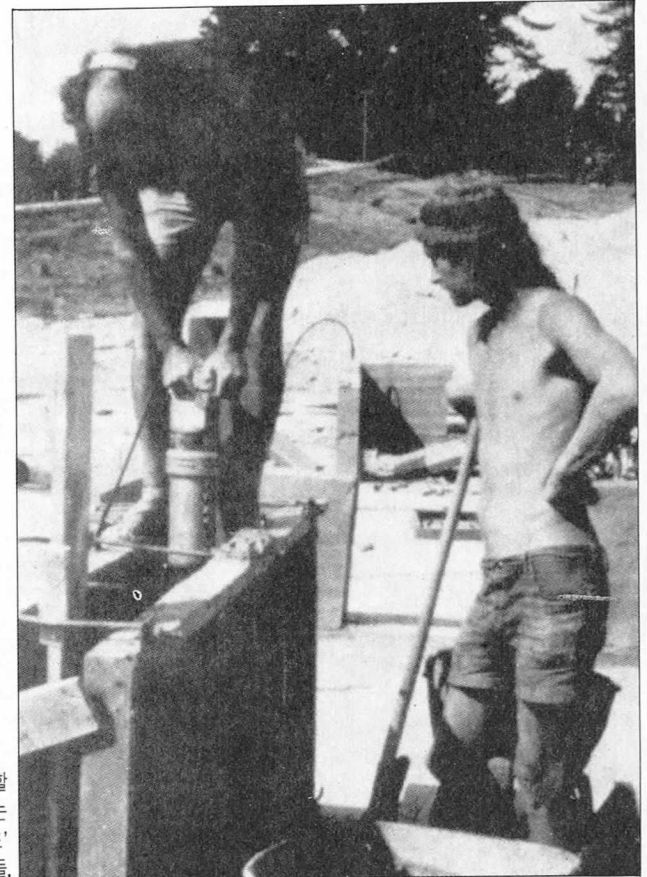
기치로 놓고 보는 “공리적 환경론”임을 은근히 비판한다. 즉, 생명중심, 생태중심의 가치와 세계관이 개개인의 일상적, 문화적, 사회적 활동들을 지배해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적인 전망이 열릴 것”임을 공통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자연농법을 통한 대자연으로의 회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후꾸오까 마사노부의 「생명의 농업」(정신세계사)은 「깊 한 오라기의 혁명」 「자연으로 돌아가다」 「無」 시리즈 3부작을 통해 현대의 과학농법을 비판하고 자연관과 세계관에 있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 88년 농업부문 막사아시아상을 수상한 일본의 한 평범한 농사꾼의 이야기이다.

현대문명의 위기, 과학문명의 비극적 종말을 그는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50여년간을 흙을 일구면서 터득한 실제적인 진리를 실제적인 용어로 설명하는데, 그는 구체적으로 땅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자연에 흐름에 맞추는 농사방법들, 즉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쓰지 않고, 농약을 안 뿌리며, 잡초를 뽑지 않고, 땅을 갈지 않는 이른바 ‘4무농법’으로도 충분한 수확을 해냈던 경험을 이 책에서 밝힌다.

‘고집쟁이 농사꾼의 세상사는 이야기’란 부제가 붙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현암사)는 “농사를 지으며 대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고 자리를 매며 인생을 배운다”는 경북 안동의 농부 전우익씨의 편지글 모음이다. ‘공공 얼어붙은 겨울추위가 봄꽃을 한결 아름답게 피운다’ ‘물이 갈라지듯 흙덩이가 곡선을 그으며’ ‘뿌리없는 것이 뿌리 박은 것을 이긴다’에 나뉘어 담은 이책에는 콩, 팥, 도라지, 울무, 수수 등 밭농사는 물론 까다롭기 그지없는 수유까지 심어가며 혼자 농사를 짓고 있는 그가 “씨앗조차도 다 외부에 의존하고 별 고뇌없이 씨를 뿌리는” 오늘의 농촌현실에 던지는 한탄도 섞여 있다.

대구 한살림협동조합의 이사로 있는 천규석씨의 「이 땅덩이와 밥상」(창작과비평사)은 화학비료에 인간의 몸과 땅이 섞어들어가는 현대농업을 비판하며 오래전부터 유기농법을 역설하고, 그 자신이 각고의 노력 끝에 병든 땅의 토질을 바꿔 성공적으로 밀과 쌀을 재배해낸 경험을 담고 있다. 어느 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꾸라지와 메뚜기가 그의 논에서 놀게 하기까지 농민운동가에서 철저한 환경론자로 변신과정의 시론 형식으로 발표된 글모음 속에 담겨있다.



집을 지을 때 사용할 흙벽돌을 만들고 있는 뉴질랜드 '리버 사이드' 공동체의 구성원들.

‘세계문학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책’이라고 불리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이레)은 뛰어난 자연묘사와 유려한 문체로 문학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 완역되었다. 이 책은 지은이가 1845년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마을 근처의 월든 호숫가에서 집 한 채를 짓고서 철저히 자급자족하면서 생활한 2년여간의 체험을 적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옷을 바꿔입는 숲과 호수의 모습, 어미 들꿩과 새끼들의 생존전략 등 저자는 세속적인 성공의 통념을 거부한 채 스스로 선택한 숲속 생활의 이모저모를 정확한 수치를 동원해가며 그려놓고 있는데, 자연속으로 들어가 철저히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이 이 책을 ‘최초의 녹색서적’으로 불리게 한다.

문명의 위기에 대비한 공동체 운동

미국 코넬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윌리엄 푸트 화이트 박사와 그의 부인이 스페인 바스끄 지방 몬드라곤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한 기록인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나라사랑)는 한 지역의 거의 전산업과 거의 모든 사회·문화활동을 협동조합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체제의 가능성으로 제시해오던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이다.

역시, 세계각국에 위치한 공동체들을 직접

방문 4년여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세계의 공동체마을」(정신세계사)은 산업화, 가치관의 상실, 인간소외, 인구폭발, 자원고갈, 환경오염, 핵문제 등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의 문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공동체’라는 그들 나름의 삶의 양식을 개발·발전시켜온 세계 18군데 모범 공동체를 소개한다. “공동체들은 대체로 상당 수준의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속한 지역 안에서 인구주민과 더불어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들이 바깥세상에서 장차 일어나게 될 경제적인, 혹은 그밖의 대격변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그러한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 공동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잘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지적하듯 이들 공동체는 인간의 기술문명이 축적해 놓은 가공할 파괴력을 통해 머잖아 인류파멸이 닥쳐오리라는 우수한 예언자들의 음산한 목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번역서들의 재미있는 공통점을 하나 지적하자면, 역자들이 원저를 읽거나 번역한 후 그 삶에 깊이 매료돼 한동안 그들처럼 살거나 아예 본업을 작파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땅을 일구며 실천가로 변모한 점이 이채롭다 하겠다.

—정혜옥 기자